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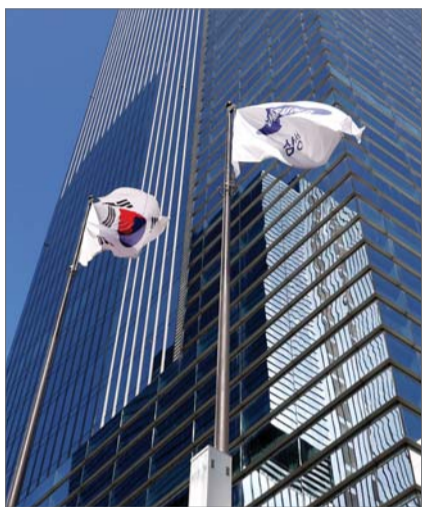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76.88 (-12.09)	751.81 (-2.2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918 (-0.017)	1378.40 (+7.50)

## 인력 고령화... 인적 쇄신 불가피 반도체 사장단 중심 칼바람 예고

위기의 삼성, **골든타임** 잡아라

〈上〉 세대교체

3분기 '어닝쇼크'로 위기론 확산 업계 안팎서 인사정비 필수 지적 연말 임원인사 30% 감축 가능성 DS부문 사장단 전원 교체 전망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위기론에 휩싸인 삼성전자의 세대교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는 인재 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희망퇴직 등 대규모 인력조정은 피해왔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주력인 반도체 사업의 부진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 내서 부서도 팽배한 패배감과 과도하게 많은 수석 (C3) 인사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며 인력 고령화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용 회장이 이근희 전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이어 받고 고강도 쇄신에 돌입할 지 주목된다. 30년 전 이 전대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주문하며 혁신과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력 고령화 심화"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반도체 실적

악화 여파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전 사업부에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업계 안팎에선 대대적인 인사 정비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내부서도 인력 고령화가 주요 실적 부진으로 꼽히며 사장단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한국CXO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3~4년 사이 CL3(차·부장급)에 해당하는 40대 이상 직원이 늘고 20대 직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전 부회장은 최근 사과문을 통해 "이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반도체 수장의 이례적인 사과와 고강도 쇄신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연말 임원 인사에서 30%가량 인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사장단 전원 교체 유력

삼성의 고강도 쇄신의 일환 가운데 하나로 DS부문의 사장단 전원 교체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이장배 메모리사업부장과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은 선임된 지 3~4년이 지났다. 하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주력인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현재 이장배(메모리사업부장), 최시영(파운드리사업부장), 박용인(시스템LSI사업부장), 남석우(제조&기술담당 사장), 송재혁(최고기술책임자(CTO) 등 5명의 사장단이 모두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후임으로는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 부사장,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윤태양 안전보건책임자(CSO) 이 물망에 오른다. <2면에 계속>

/구남경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서초 등 4곳에 5만 가구 공급

주택 추가공급 방안

서초, 대곡, 의왕, 의정부 선정 서리풀 지구에 2만 세대 조성 합리적 가격에 젊은층 우선 공급

정부가 수도권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비롯해 고양대곡, 의왕, 의정부 등 4곳이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된다.

당초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이나 경기 하남 감일·감북동 등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우면동, 원지동 등 2만호) ▲고양대곡역세권(내곡동, 화정동 등 9000호) ▲의왕오전·왕곡(오전동, 왕곡동 등 1만4000호) ▲경기 의정부 용현(신곡동, 용현동 등 7000호) 등 4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들은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리풀지구는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고속도로·분당내곡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정부는 신분당선 추가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리풀지구의 경우 총 2만 세대 중 주택의 55%(1만1000호)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로 공급한다.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양대곡역세권은 GTX-A(2024년 말 개통 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2024년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다. 개발 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됐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인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다.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해 신규택지 조성 시 자족 기능 확보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르면 오늘 윤곽

〈한국시각〉

美 대통령 선거 투표 시작 마지막까지 '초박빙' 예고

미국 4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현지시각으로 5일 0시 막이 올랐다.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오후 2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치뤄질 전망이다. 투표 종료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주별로 투표소 운영시간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미 대선 투표는 50개주와 워싱턴DC에서 진행된다. 승부의 윤곽은 이르면 5일 밤 늦은 시각, 한국시각으로 6일 오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2~4면>

미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뉴햄프셔주의 산골마을 디스빌노치에서 첫 개표 결과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3표를 얻어 동률을 이뤘다. 이날 투표에는 4명의 공화당원과 2명의 당적을 밝히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북단의 캐나다 접경에 있는 작은 마을인 디스빌노치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일 오전 0시에 투표소를 열고 투표의 첫 테이프를 끊어왔다. 뉴햄프셔주에는 주민 100명 미만의 지자체의 경우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어 동북부에 있는 버몬트주가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5시(한국시간 오후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다. 아울러, 동부에 위치한 뉴욕주, 버지니아주, 뉴저

지주, 메인주 등이 오전 6시부터 투표가 개시됐고, 워싱턴DC 등은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미국 중부와 서부 지역도 시작 시간이 오전 7시 안팎으로 비슷하지만, 시차로 인해 시작 시간은 더 늦다. 특히 워싱턴DC 등보다 5시간 느린 하와이주는 오전 7시에 투표를 시작하지만, 동부 기준으로 5일 정오에야 투표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5일 밤 늦은 시각(한국시각 6일 오후)에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를 통해 승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관측도 있다. 과거의 대선을 보면 늦어도 다음날 승패가 결정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일에서 한달 이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직전 대선에서도 4일이 지나서야 승자가 가려졌다. /원승일 기자 won@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대폭 확대" /사진 뉴스스  
▲ 이준석 "당, 모든게 이준석 탓... 대통령실 말미잘 수준 대응"

▲ 나경원 "野, 북한인권재단 이사 하루빨리 추천해야"  
▲ 여당 "나무위키 운영사, 성착취물 사이트 소유"



▲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앞두고 6일 당 중진의원 회동 /사진 뉴스스  
▲ 민주당,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도 대통령과 연락